



메가마트 신동익  
농심 지분  
있단 매도  
L1



Life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프라이마  
유럽시장서 선전  
L2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 KRX거래소 컨퍼런스홀 metro • metro경제  
후원 :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거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 제자리 찾은 '글로벌 물류', 친환경·미래지향적 진화 시작

엔데믹에 물류·모빌리티 변혁기 연구개발 등으로 융합·발전 가속화 직구 등 국경 허문 초국경무역 커져 물류산업 혁신 등 '미래 물류' 강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단절, 지연, 부족, 적체 등의 단어로 가득했던 글로벌 물류가 점점 정상화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지난 7월 펴낸 '2023년 상반기 물류브리프'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글로벌 공급망은 이 기간 겪은 사상 초유의 상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에 걸쳐 '뉴 노멀(new normal)'이 확립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급망 위험 분산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리쇼어링 및 중국의

존도 축소 ▲권역화 추세 강화 ▲자동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등에 기반한 역동적 리질리언트(resilient·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을 지금의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았다.

물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런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진보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융합·발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화 추세는 그렇다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류와 모빌리티의 진화는 인류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모빌리티는 전기와 수소 등으로 서서히 옷을 바꿔 입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 ICT 등의 기술이 물류, 모빌리티와의 융합도 이미 대세가 됐다.

정부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로봇

배송, 드론 배송,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스마트물류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개별 나라, 사기업의 물류기지 구축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세계 요충지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지는 초국경무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대표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당시 3225만5000건이던 해외직구 물량은 4298만8000건(2019년)→6357만5000건(2020년)→8838만건(2021년)→9612만건(2022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해외직구 1억건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8번째로 올해 진행하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은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로 정했다.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10	축사	김경만 국회의원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50	기조강연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글로벌 물류 산업 혁신 동향 및 미래 물류 모빌리티 전망
14:50~15:20	강연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새로운 커머스시대 스마트 물류
15:20~15:50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
15:50~16:20		최규범 로지올(생각대로) 부대표 : Lastmile, EV and ESG

기조강연은 인천대에서 동북아물류대학원을 이끌고 있는 송상화 원장이 '글로벌 물류 산업 혁신 동향 및 미래 물류 모빌리티 전망'이란 주제로 포문을 연다.

송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빠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배송할 수 있는가?) ▲풀필먼트 서비스 혁신(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디지털 물류 혁신(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의 '새로운 커머스시대 스마트 물류',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의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의 'Lastmile, EV and ESG'의 강연도 포럼에서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2003년 문을 열었다. 송상화 원장은 올해 7월부터 제9대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으로 취임해 대학원을 이끌고 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물류 및 공급망관리(SCM)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대가 있는 인천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인천자유구역이 있는 동북아 물류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북아물류대학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물류회사, IT기업, 유통기업, 스타트업 등에 최적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 원장은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에서도 '물류산업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

####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아워박스는 풀필먼트 서비스(On-demand Fulfillment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다. 고객사 전용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웃소싱 서비스, 고효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물류 컨설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파이낸싱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박철수 대표는 피자헛코리아, KFC, 디아지오코리아를 거쳐 AB인베브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을 역임했다. 아워박스는 2017년 창업했다.

아워박스는 현재 경기 평택, 군포, 오산(스마트 센터), 곤지암(GC 센터), 평택(신세계푸드 센터), 충북 음성(동원 온라인 센터) 등에 풀필먼트 센터를 갖추고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및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김서영 대표가 2014년 창업한 하이리움산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회사다. 액화수소탱크, 수소충전소, 연료전지파워팩, 수소드론을 비롯

해 미국 차트인더스트리와 기술 제휴한 탱크트레일러 등이 주요 생산 제품이다. 차트인더스트리와 협력해 수출입 시 쓰는 ISO탱크, 수소충전소용 지상저장 탱크 등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하이리움산업이 개발한 최장 5시간 비행하는 수소연료드론은 최근 독일에서 시연에 성공했다. 수소연료드론은 내년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남미 브라질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도전도 한다.

하이리움산업은 지난 9월 초 경기 평택 포승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액화수소 관련 각종 제품을 본격 생산한다.

####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



국내 배달 대형 플랫폼 업계 1위인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는 로지올은 인성그룹 계열사다. 쿼·대리운전 프로그램 업계 1위인 인성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인성그룹은 이륜차부터 사륜차

까지 아우르는 IT 기반의 종합 물류 시스템 기업이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최규범 부대표는 로지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겸하고 있다.

로지올은 국내 1위의 이륜차 렌트서비스 회사 바이크뱅크,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닷스테이션을 관계사로 두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로지올과 닷스테이션은 대만의 스타트업 '고고로'와 독점 계약을 통해 고고로가 생산하는 전기이륜차를 국내에 보급하며 친환경 비즈니스에도 앞장서고 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잠실 돐구장' 계획 발표...LG·두산, 6년 간 임시 안방 찾아야  
▲히샤를리송 동병상련 손흥민 "내가 골 넣은 것보다 좋다" /사진 뉴시스

▲'세르비아 무난 데뷔전' 황인범, 이제 시선은 맨시티로  
▲2023 KBL 컵대회 타이틀스폰서, 'MG새마을금고' 확정



▲女배구, 강호 폴란드에 1-3 패배...올림픽 예선 2연패 /사진 뉴시스  
▲아시아게임 정식종목된 브레이크...팝핀현준 해설